

論語에 나타난 인간중심 상담원리

황임란(黃 壬 蘭)¹⁾

본 연구의 목적은 孔子의 어록인 論語를 현대적 의미의 상담이론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서구 상담이론의 주류인 인간중심 상담원리에 기초하여 論語를 분석하였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마음의 儒教的 습성들’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아시아인들 역시 오랜 역사 속에서 儒敎의 가르침과 사상에 익숙해져 있다. 반면 서구의 상담이론이 도입된 이래 상담분야의 연구는 서구상담의 이해와 실천에 편중되어 전개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통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담분야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비추어 필자는 다문화적인 관점의 상담이론과 그 접근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간중심 상담원리에 기초하여 論語에 나타난 상담의 개념과 접근법을 추출하였다.

論語는 인간을 선하고 자발적으로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論語의 인간관은 인간중심 상담원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주의(humanism)에 입각해 있다. 또한 자아실현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도 論語의 인간관은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인간관과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論語가 추구하는 인간상도 인간중심 상담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매우 유사하다. 論語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君子’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인간중심 상담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목표로 한다. ‘君子’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표현의 방식이나 인간완성의 정도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양자가 모두 인간의 선한 본성과 사랑을 인간관계속에서 실현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순탄하게 ‘君子’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論語와 인간중심 상담원리는 개인들이 삶에서 얻게되는 각각의 경험과 습관, 교육의 차이로 성장에 방해받게 된다는 데 관점을 같이한다. 나아가 성장에 방해받은 사람들을 돕는 상담의 전략과 기법으로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 그리고 일치성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論語의 각 편에서 구체적으로 孔子의 언행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論語에 나타나 있는 상담원리를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주제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인간중심 상담원리에 익숙한 상담자들이 論語에 나타난 상담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이런 연구결과는 앞으로 상담자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전문적 상담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 儒敎文化圈의 내담자들이 상담에 쉽게 동참하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색어 : 儒敎, 論語, 孔子, 仁, 君子, 인간주의, 인간중심상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근래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것이라면 거의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전통을 소홀히 했던 경향에 대한 반성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우리 문화 전통의 중요한 부분을 여러 견지에서 다각적으로 재조명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데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상담학 분야에서도 1960년대를 전후하여 소개된 서양의 여러 중요한 이론들이 과연 우리의 문화나 전통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우리 문화나 전통에 근거한 상담이론과 기법들을 어떻게 개발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동식(1968, 2000), 정창용(1968)은 도(道)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담원리를 검토하였으며, 이죽내(1981)와 권석만(1997, 1998), 윤호균(1982a, 1982b, 1999, 2001)등은 불

1)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교사상을 상담과 관련지어 검토하였다. 또한 박성희(1999, 2001)는 儒家, 불가, 도가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과 서양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비교한 연구들을 통하여 우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간이해와 접근들이 상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탐색하였다. 특히 김삼화(2002)는 論語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일반적 상담 장면들을 검토하고, 論語 속의 상담적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서양 학자들도 서구의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 사회에 내재하는 한계와 모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儒敎의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동아시아의 사상적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광세, 1998).

동아시아의 중심 사상중 하나인 儒敎는 우리의 문화 전통과 의식구조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 한국 儒敎의 출발은 한문을 상용하는 기록 문화의 도입 시기인 삼국시대와 그 시발점을 같이하며 발전하였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전 국민의 지적 능력이 그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유지하는데 깊이 관여하였다(한국사상연구소 편, 2001). 그 과정에서 儒敎는 국민의 삶 속에 체험적으로 녹아 들어가서, 한국인에게는 儒敎적 가치와 사상이 낫설지 않다. 고병익은 「현대 한국의 儒敎」라는 논문에서 한국인은 자신이 기독교나 불교인이라는 개인적 ‘확신(conviction)’과 달리 ‘실행(practice)’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儒敎人이라고 말했다(이광세, 1998). Tu Wei-ming(1996)은 이는 ‘마음의 儒敎적 습성들(the Confucian habits of the heart)’이 아직도 한국인의 의식 구조와 행동을 크게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상과 정신적 자원을 성장을 위한 통합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정신에 깊이 영향을 미쳐온 전통 사상 중 하나인 儒敎思想에 서양의 상담이론에서 강조하는 인간이해와 성장을 조력하는 요소가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서양 상담의 대표적인 이론인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儒敎思想이 집약되어있는 論語에 나타난 인간중심 상담원리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論語는 孔子의 언행 및 제자들과의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儒家經典이다. 論語는 孔子 자신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직접 일정한 체계나 순서에 의해 그 내용을 구분하고 글을 쓴 것이 아니고, 孔子가 죽은 후 제자들이 그의 언행을 편집한 것이다. 따라서 論語에 나타난 인간관이나 상담원리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일정하게 구분하여 그 주제에 해당하는 상담원리들이 論語의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녹아들어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論語의 방대하고 심오한 여러 내용 중에서 인간중심 상담원리에 나타난 인간관과 상담의 목표 그리고 상담의 전략과 기법과 관련된 상담원리들을 탐색하고자한다. 이들 원리와 관련된 論語의 내용을 찾아 제시하고, 이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여 실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상담학 분야에서 儒敎에 기반한 사람들의 심성을 이해하고 조력하는데 관심 가져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담학의 제반 영역에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 결과물들이 널리 적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인간중심 상담의 제원리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인간관

인간중심 상담원리는 Rogers에 의해 제창되었지만 그 사상은 인간주의(humanism)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주의는 1940년대 후반에 Freud의 정신분석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의 자극-반응설에 대항하거나 또는 자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발전하였다. Rogers는 심리학과 교육학 측면에서 인간주의의 발달에 의미 있게 공헌한 인물 중 한사람으로 특히 상담심리학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Kolesnik, 1975).

인간주의에서 인간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갖는다. 또한 인간주의는 인간을 선천적인 사회적 존재로 보며, 모든 인간은 그에게 주어진 행복에 도달하고 그에게 주어진 특수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관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주의에서는 인간의 생명, 가치, 교양, 창조력을 존중하여 보호하고, 더욱 풍부하게 하려고 한다.(務台理作, 1961). 이러한 인간주의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인간생활이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현대에 적합한 인간주의가 요구되지만, 인성에 관한 가정은 공통적이다. 그 공통의 기본 정신으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동물생활과는 다르며,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환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체적이고 주관적이며, 개인의 내면 세계와 경험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같은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간주의자들은 또한 모든 인간에게는 자연적 善性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며, 인간의 무한 성장 가능성은 자기 결정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실현된다는데 입장을 같이한다.(Kolesnik, 1975).

Rogers의 저서와 연구에서 발전한 인간중심 상담은 상담자에게 인간주의적인 철학과 모든 효과적인 상담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기본적 조력 기술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은 인간중심 접근방식의 치료적 원리들에 의존한다(Schmidt, 1996; Corey, 2001; Ivey, D'Andrea, Ivey, & Simek-Morgan, 2002). 우리나라에도 해방 이후 상담이라는 개념이 교육분야에 들어온 이후 학교교육과 생활지도 및 상담에서 민주교육의 이상 및 학생중심의 교육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Rogers의 상담이론이 선호되었다. 따라서 인간중심 상담원리는 우리나라의 초창기 상담이 자리매김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상담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황임란, 2001).

Rogers(1961)는 인간의 情緒的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인간을 사회적이고, 전진적이며, 현실적인 존재로 보았다. 부정적이며 반사회적인 감정도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충동의 좌절에서 온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에게 생활의 부적응을 좀더 적응 상태로 이끌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원리에서는 개개인에게 자기 개념과 현상적 경험을 일치시킬 수 있게끔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情緒的 자유를 강조한다. 개인이 자유를 느끼는 상태에서 더욱 자주적이며 자발적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주체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면, 인간은 모두 자신이 가지는 본성적인 선함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존재라고 믿는다.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상담목표

인간주의에서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목표이자 인간의 최고 목표를 자아현실화(self-realization) 또는 자아완성(self-fulfillment)으로 표현되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였다(김상호, 김기정, 1999). 따라서 바람직한 인간상은 자아실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실현인은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참되고 순수하며 진지한 사람이다. 자아실현인

은 외부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부지향적이며,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자유스런 사람이다. 자아실현인은 자신에게 가장 풍부하고 행복하며, 가장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Maslow, 1968, 1976).

Rogers(1961)는 인간중심 상담원리에서 건강한 인간상을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the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는 고유한 용어로 제시하였다.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은 인간주의에서 추구하는 자아실현인에 그 기본 개념을 두고 있다. Rogers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은 인간중심 상담자가 최대한 성공적으로 상담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특성을 표현한 것으로, 내담자나 상담자가 모두 지향해야 할 인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은 최대한 정확하게 내·외적 실존상태에서 자기 감각의 사용을 증진시키고, 총체로서의 자기를 인식하고 온전한 자각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정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또 모든 복잡한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전체적 유기체로서 자기의 모든 기능을 작동한다. 그는 모든 자신의 느낌을 두려움 없이 진실로 경험하고 수용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드는데 온전히 헌신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건강하게 사회와 관계 맺는 사람이다(Rogers, 1961). 또한 Rogers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은 하나의 존재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 하였으며 그 과정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하는 과정, 실존적 삶의 태도가 증가하는 과정,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Sharf, 2000). 따라서 인간중심 상담의 목표는 상담자가 관계 맺음을 통하여 내담자를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인간주의와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인간 존재, 그 자체의 가치가 인정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양육적이고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모든 인간이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 개인에게 경험되는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각이 부정되거나,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데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순수한 자신을 찾고 성장시키는데 방해가 받게 된다고 보고 있다. Rogers는 성장에 방해가 받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은 효과적인 인간 관계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다고 하였다(Sharf, 2000). 따라서 인간중심 상담원리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본래의 자기 성장 가능성을 찾아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게 효과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돕는 사람이다.

인간중심 상담자로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인간에 대한 태도이다. Rogers는 상담자의 철학이나 기술보다도 상담을 하면서 나타내는 상담자 자신의 성품이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믿었다.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요인들로 Rogers(1954, 1961)는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일치성을 제시하였다. 인간중심 상담자는 지식, 이론, 기법보다는 이 세 가지 요인을 갖춘 상담자의 태도로 내담자의 건강한 변화를 촉진시킨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를 돕기 위한 도구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격을 사용한다. Rogers(1961)는 상담자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담자 자신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담자는 자기 자신으로서 경청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일 수 있을 때 관계 맺음과 상담에서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상담전략과 기법

Rogers는 창의적 삶이야말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개인이 생존을 넘어서서 전진적이며, 현

실적인 존재로서, 적응하는 사람으로 기능하도록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나 교사 등 타인을 조력하는 사람들은 내담자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심리적 조건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황임란, 2002).

Rogers는 한 개인이 잠재적으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하려면 몇 가지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은 경험의 개방성, 평가에 대한 내적 통제 소재, 요소와 개념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 했다. Rogers는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건설적으로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다(황임란, 2002). 따라서 한 개인의 건설적인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심리적 조건을 구성하여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심리적 조건으로 Rogers는 심리적 안전(psychological safety)과 자유(psychological freedom)를 제시하고 있다(Rogers, 1961).

심리적 안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개인을 수용(acceptance)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담자에 대한 긍정적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 존중은 상담자가 내담자 안에 있는 가치와 힘을 재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만약 상담자가 내담자의 긍정적 측면이나 가치를 신뢰하지 못하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에 대해 거의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된다(Ivey, D'Andrea, Ivey, & Simek-Morgan, 2002). 긍정적 존중은 상담자나 치료자의 매우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 양육되는 태도인데, 이것의 실천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Carkhuff & Anthony, 1979), 자원과 힘과 긍정적 자산을 찾는 것(Ivey, Pederson, & Ivey, 2001) 그리고 해결해야만 할 것으로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갖지 않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외적 평가에서 결핍되었던 환경을 제공하는 것(providing a climate)이다. 즉 그 동안의 삶에서 개인에게 이루어진 외적 기준에 준거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런 환경에서 개인이 자신을 알아가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로, 이것이야말로 앞의 두 가지와 함께 최상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감적 이해는 타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들의 귀로 들으며, 그들의 내적 세계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개인 창의성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적 태도이기도 하다.

심리적 조건의 두 번째는 심리적 자유이다. 상담자나 교사, 타인을 조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자유를 개인에게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육성할 수 있다. 허용성이란 한 개인의 생각과 느낌과 존재에 대해 온전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개방성을 양육하고 지각과 개념과 의미에 대해 유희적이며 자발적인 처리 능력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인간중심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 탐색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창출하여 내담자가 그 속에서 많은 감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주관세계를 탐색하도록 돕는다(Corey, 2001). 이런 상담과정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기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자존감을 살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배워서 제대로 잘 기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지금까지 인식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왜곡시켰던 그들의 생활 영역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조력 관계를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진실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순간 순간의 경험에 기초하여 내담자의 주관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가 심리적 자유를 내담자에게 허용함으로써 내담자들은 자신의 방어와 경직된 지각을 느슨하게 할 수 있고 개인적 기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Thompson & Rudolph, 2000; Corey, 2001).

상담자가 형성해야 하는 심리적 조건 이외에 Rogers가 강조한 것은 상담자의 일치성이다.

Rogers에 의하면 일치성은 인간중심 상담을 실천하는 많은 부분들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 요소이다. 상담자의 일치성이란 상담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Rogers는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충분히 기능하는 한 인간으로서 상담자들이 자기 자신을 경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Rogers는 상담자도 인간이고 그들도 충분히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상담자는 그런 자신을 자각하고 내담자들과 상호 교류하면서 일치성을 실현시켜나갈 수 있다고 했다(Corey, 2001; Ivey, et al. 2002). 즉 일치성은 상담자 자신의 허심탄회하면서도 적절한 자기 노출임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내담자의 일치성을 증가시키고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Rogers의 이론이 실제 상담에 미친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평가된다(Schmidt, 1996). 또한 인간중심상담에서 강조하는 상담자의 태도이자 기법인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일치성은 근래에는 어떤 상담적 접근에서도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論語에 나타난 인간관

儒家의 모든 학문은 오로지 ‘인간이 인간된 所以’를 연구하는 것이 그 범위일 뿐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중심적인 사상이다(張基昫, 1981). 儒敎의 중요한 개념은 모두 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서로 의존하여 彼此가 나뉘어질 수 없다. 仁이라는 글자가 두 사람 또는 한 쌍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두 사람 이상은 다수이다. 仁이라는 글자를 만든 근본 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땅히 서로 친애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비로소 인간이 된 도리를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論語는 모두 20장 499절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仁을 논한 것이 59절이므로 10분의 1이 넘는다(張基昫, 1981). 또한 仁자가 論語에 나타나는 것은 110자에 달하므로, 孔子가 언제나 되풀이한 말임을 알 수 있다. 孔子와 그 사상을 이어 받은 유학의 성현들은 “仁이란 人(사람)이다.”고 하였는데, 仁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것은 곧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孔子는 이것을 論語 顏淵篇 22절에서 “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인간본성의 情的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仁은 무진장한 善意이며 최대의 생기와 잠재능력을 말하는데, 孔子가 말하는 仁에는 남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 인간된 所以를 알고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서로 친애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論語 雍也篇 28절에서는 “仁者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또 論語 述而篇 29절에서는 “仁이 멀리 있는가? 내가 仁을 하고자 하면 仁이 당장 이르는 것이다”고 하였으며, 論語 里仁篇 3절에는 “오직 仁者여야 사람을 좋아하며,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였고, 4절에서는 “진실로 仁에 뜻을 두면 악함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仁을 행하는데 힘을 써야 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능히 하루라도 仁에다 그 힘을 쓴 사람이 있는가? 나는 아직 힘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아마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論語 里仁篇 6절).

보통 사람은 仁에 힘을 쓰려하지 않을 뿐이지, 그 힘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으로, 인류의 선의에 대한 굳센 신뢰를 나타낸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仁이 인간성의 그 숭고한 이상이라면, 사랑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仁에 대한 실천이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본성은 仁이고, 이 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힘쓰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 본성이 선하며 그 선함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본성인 仁의 발현과 실천은 건강한 인간 관계의 교류에서 발생하기에, 인간을 관계 속의 존재로 본다. 즉 인간의 본성인 仁은 관계 맺음을 지향하는 욕구, 관계 맺음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관념, 그리고 관계 맺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의 근거로 존재한다. 또 공자는 인간은 자신이 만드는 관계를 자기 자신과의 교류로부터 가족, 사회, 국가, 천하, 우주로 점차 넓혀보고 그 교류와 관계의 질과 폭을 仁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子罕이 말하였다. “만일 백성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博施)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면(濟衆) 어떻겠습니까? 仁하다고 할 만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仁을 일삼는데 그치겠는가. 반드시 聖人 일 것이다.堯舜도 이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을 것이다.

仁者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

가까운 데에서 취해 비유할 수 있으면 仁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만하다.”(論語 雍也篇 28절)

이곳에서 孔子는 仁의 실현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차 멀리로 깊고 넓게 확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論語에 나타난 인간관은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인간관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인간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본다. 인간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정서적 안정이 있을 때 더 잘 실현되며, 개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맺음과 상호간의 선한 의지의 도움을 통해 향상되고 실현된다는 측면에서도 인간중심 상담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 務台理作(1961)은 서양의 인간주의에 상응하는 동양의 인간주의가 있다고 하면서, 孔子 당시 原始儒學에서 仁의 사상 같은 것은 지극히 중국적인 인간주의라고 말했다. 권정안(1989)은 孔子 이후 유학에 나타난 다양한 변용들이 하나의 유학으로 불리는 이유를 인도주의(humanism)로 설명한다. 즉 다양하게 변용된 유학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관심에는 하나의 보편성이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유학의 인도주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상담자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과 문화적인 측면의 근간을 이루는 儒敎와 많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남아있는 ‘마음의 儒敎적 습성들(the Confucian habits of the heart)’을 이해하고 현대의 한국인들이 삶의 다양한 형태에서 적응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論語에서 발견하는 현대의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인간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儒敎의 측면에서 현대의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인간관을 발견하도록 내담자들을 도움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내담자들이 인간중심 상담원리를 쉽고 용이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論語에 나타난 상담목표

論語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君子이다. 이에 대해 孔子는 論語 述而篇 25절에서 “聖人을 내가 만나볼 수 없으면, 君子만이라도 만나보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聖人은 孔子 사상에서 인류가 영원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경지로 지혜와 덕이 최고에 이른 자를 말한다. 하지만 孔子는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도 聖人이라 자처하지 않았다.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聖과 仁으로 말하자면 내 어찌 감히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仁聖의 道를> 행하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고 하셨다. 公西華가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저희 제자들이 배울 수 없는 점입니다.”(論語 述而篇 33절)

이곳에서 孔子의 제자들은 孔子를 聖人으로 믿었으나 孔子는 스스로 聖人임을 사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중, 1980). 따라서 우리는 論語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君子라고 볼 수 있다.

論語에 나타난 君子의 모습으로 爲政篇 12절과 13절에서 孔子는 “君子는 그러처럼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君子는 “먼저 그 말한 것을 실행하고, 그 뒤에 말이 <행동> 따르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 爲政篇 14절에서 “君子는 두루 사랑하고 偏黨하지 않으며 小人은 偏黨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君子는 하나 하나의 전공사에만 능하여 다른 일에는 딱 막힌 편중된 인간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른바 인간성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인간, 주체적인 인간 즉 全人(Whole man)인 것이다. 또한 孔子는 情緒的인 측면에서의 君子를 설명하였는데 顔淵篇 4절에서 “君子는 걱정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하였으며, 憲問篇 30절에서는 “君子의 道가 세 가지인데 나는 능한 것이 없다. 仁者는 근심하지 않고 智者는 의혹하지 않고, 勇者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 憲問篇 33절에서 君子는 “남이 나를 속일까, 逆探(미리 짐작)하지 않고, 남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臆測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먼저 깨닫는 자가 어진 것이다.”고 하여 경험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君子라 하였다. 즉 君子는 정서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수용하고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는 論語에 나타난 孔子의 사상에서 인간이 仁을 실현하면 모두 君子가 될 수 있음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은 君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論語에 제시된 바람직한 인간상인 君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孔子는 여러 경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침이 있으면 종류가 없다.”(論語 衛靈公篇 38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性稟은 서로 비슷하나 習慣에 의하여 서로 멀어지게 된다.”(論語 陽貨篇 2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싹이 났으나 꽃이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論語 子罕篇 21절)

孔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가르침이 있

으면 종류가 없다.”는 말은 배우고 안 배우는 구별은 있을지언정 귀천 상하의 종류는 따로 없다는 의미이다(정중, 1980). 인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이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에 의하여 서로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아실현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경험과 노력의 결과 때문이다. 즉 모든 인간은 선한데 선함과 악의 차별이 생기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경험과 습관 그리고 교육의 다름으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孔子는 모든 사람이 이상적 인간인 君子가 되도록 개인에게 후천적으로 주어진 경험과 습관 그리고 교육을 인간관계 속에서 바꾸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論語에 나타난 孔子 최대의 신념 토로는 위의 衛靈公篇 38절의 “가르침이 있으면 종류가 없다.”는 것으로(정중, 1980), 이것은 예방적, 발달지향적 의미의 상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적극적 의미로는 인간들 모두가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경험이나 습관, 교육 수혜의 차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소극적 의미로는 지금의 방해 요인을 보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든 접근을 孔子는 구체적인 환경과 개인의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수준, 자각된 환경에서 생생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孔子는 언제나 사람들이 내적인 요구에서 자발적으로 나서기를 기다렸고 또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였다. 즉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쳤다. 즉, 교육의 비결은 교육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 교육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바로 인간중심 교육과 상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들은 論語 爲政篇 12절에서 “君子는 그릇처럼 국한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나, 13절에서 君子는 “먼저 그 말한 것을 실행하고, 그 뒤에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述而篇 7장에서는 “마음으로 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며, 애태워하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으며, 한 귀통이를 들어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은 세 귀통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다시 더 일러주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 역시 상대방의 수준을 고려하여 돕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다. 爲政篇 10절에서는 “그 하는 것을 보며, 그 이유를 살피며, 그 편안히 여감을 살피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우선 타인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강조하였다.

論語에 나타난 바람직한 상담자 역시 君子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孔子는 論語 雍也篇 28절에서 “仁者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고 설명하였고, 論語 憲問篇 29절에서도 “君子는 그 말을 조심하고 행실을 말보다 앞서게 한다.”고 하였다. 또 論語 子路篇 6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論語에 나타난 상담자는 君子이고, 상담자의 임무는 君子의 임무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孔子는 君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子路가 君子에 대하여 물으니, 孔子께서 말씀하시되, “敬으로써 몸을 닦는 것이다”고 하셨다. 子路가 “이와 같을 뿐입니까?”하니, “몸을 닦아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다시 “이와 같을 뿐입니까?”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함은 堯舜께서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다”고 하셨다(論語 憲問篇 45절).

이는 타인의 자기 실현을 돕는 상담자인 君子는 자기 자신이 변화의 도구로 사용됨을 알고 상담에 임하되, 우선 자신의 몸을 닦아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이 타인을 편안케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 몸소 知行合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보면 論語에 나타난 바람직한 인간상인 ‘君子’와 인간중심 상담원리에 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은 용어와 인간완성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성격에서는 大同小異하다. 즉 인간이 타고난 본연의 아름다운 선함과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君子’가 되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본성이 선하고 스스로 자아실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君子’가 되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유, 즉 삶의 경험 차이로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찾는 것에 방해받았을 때는 사람들은 진정한 느낌과 자기 자각으로부터 차단되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왜곡된 자기를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君子’가 되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방해받게 된다. 이때 성장에 방해받은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 인간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좋은 인간 관계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얻어 모든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상인 ‘君子’와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論語와 인간중심 상담에서 추구하는 상담의 목표이다. 그리고 인간을 돕는 좋은 인간 관계는 ‘君子’나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인 상담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상담 목표가 실천되는 것이다. ‘君子’나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인 상담자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선함과 적극적인 본성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내담자나 타인을 억지로 가르치거나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가 知行合一의 모델링을 보이면서 내담자와 함께 경험을 통해 존재한다.

論語에 나타난 상담전략과 기법

論語에 나타난 孔子의 언행 및 제자들과의 문답한 내용을 통하여 孔子가 어떻게 상담을 진행했는지를 탐색해 볼 수 있다. 論語에 나타난 상담자로서 孔子의 모습은 孔子와 제자들의 다음과 같은 문답에 잘 나타나있다.

子路가 “<옳은 것을> 들으면 실행하여야 합니까?”하고 묻자, 孔子께서 “父兄이 계시니, 어찌 들으면 실행할 수 있겠는가?”하고 대답하셨다. 冉有가 “<옳은 것을> 들으면 곧 실행하여야 합니까?”하고 묻자, 孔子께서 “들으면 실행하여야 한다.”하고 대답하셨다. 公西華가 물었다. “由(子路)가 ‘들으면 곧 실행하여야 합니까?’하고 묻자 선생께서 ‘父兄이 계시다.’하셨고, 求(冉有)가 들으면 실행하여야 합니까?’하고 묻자 선생께서 ‘들으면 실행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시니, 저는 의혹되어 감히 묻습니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求是 물러남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요, 由는 일반인 보다 나옴으로 물러가게 한 것이다.”(論語 先進篇 21절)

여기서 우리는 상담자 孔子가 子路和 冉有의 개인적인 특성에 맞게, 즉 각각의 내담자를 중심으로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公西華가 孔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에 맞게 대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子罕篇 29절에서도 “더불어 함께 배울 수 있어도 함께 道에 나갈 수는 없으며, 함께 道에 나갈 수는 있어도 합

께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는 있어도 함께 權道를 행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인간이 모두 같을 수 없고 개인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論語 述而篇 31절에는 “孔子께서는 남과 함께 노래를 불러 상대방이 노래를 잘하면, 반드시 다시 부르게 하시고 그 뒤에 따라 부르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孔子가 타인을 좀더 중심에 두고 충분히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자신이 함께 함을 알리고자한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다.

論語에 나타난 孔子는 제자들이 묻고 또 묻는 것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었다. 앞의 論語에 나타난 상담목표에서 인용문으로 제시한 論語 憲問篇 45절 子路의 물음에 대한 孔子의 대답은 상담자 孔子의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묻고 또 묻는 것에 대해 매우 관대하면서도 점점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을 주는 모습이다. 따라서 孔子 주변의 제자들은 상담자 孔子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묻고 또 묻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장을 위하여 매진해 나감을 알 수 있다.

孔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솔직히 드러내면서 상호교류하는 장면은 論語 이곳 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혹자들이 子産의 인품을 물으니, 孔子께서 대답하셨다. “은혜로운 사람이다.” 子西의 인품을 물으니, 대답하셨다. “저 그 사람이여! 저 그 사람이여!” 管仲의 인품을 물으니, 대답하셨다. “이 사람은 伯氏의 駢邑 三白戶를 빼앗았는데, 伯氏는 거친 밥을 먹으며 평생을 마치면서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고 대답하였다.(論語 憲問篇 10절)

顏淵이 죽자, 孔子께서 곡하시기를 지나치게 애통해 하셨다. 從子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지나치게 애통해 하십니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치게 애통함이 있었느냐? 저 사람(夫人)을 위해 애통해 하지 않고서 누구를 위해 애통해 하겠는가?”(論語 先進篇 9절)

‘혹자가 말하였다. “德(恩德)으로써 원망(원한)에 갇는 것이 어떻습니까?”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으로서 德에 갇을 것인가? 정직함으로써 원한에 갇고, 德으로써 德에 갇아야 한다.”(論語 憲問篇 36절)

위의 말들에서 볼 수 있듯이 孔子는 제자들의 지적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반응하였다. 상대방의 지적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드러내는 상담자의 모습이 孔子이다. 그러면서 孔子는 제자들에게 타인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 진솔하고 솔직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상담자로서의 孔子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顏淵이 크게 탄식하여 말하였다. “<夫子의 道는> 우러러볼수록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봄에 앞에 있더니 홀연히 뒤에 있도다. 夫子께서 차근차근히 사람을 잘 이끄시어 文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禮로써 나의 행동을 요약하게 해주셨다. <공부를>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어 이미 나의 재주를 다하니, <夫子의 道가> 내 앞에 우뚝 서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그를 따르고자 하나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論語 子罕篇 10절)

孔子가 가장 아꼈던 제자인 顏淵의 말에서 우리는 상담자 孔子의 모습이 얼마나 깊고 넓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孔子도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였는데, 그 장면은 論語 衛靈公篇 15절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孔子께서는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고 말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찌할 수가 없을 뿐이다.”라고 하셨다. 孔子 역시 내담자가 동기가 없으면 상담으로 조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내담자가 상담에 임할 때 가져야하는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동기 없음을 탓하기 전에 상담자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衛靈公편 14절에서 孔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몸소 자책하기를 후하게 하고, 남을 책하기를 적게 한다면 원망이 멀어질 것이다.” 이 절에서 우리는 상담자 孔子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담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상담의 결여나 부진함의 원인을 알아볼 때 건강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무책임과 동기 저하를 탓하기보다는 상담자의 부족함을 먼저 보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상담 전략과 기법에 비추어 論語를 검토해 보면, 論語에는 인간중심 상담원리에서 강조하는 상담기법이 다양하게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論語나 인간중심 상담원리가 인간주의라는 정신사상의 공통점을 갖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연유로 Rogers가 인간중심 상담원리에서 제시하는 상담기법과 전략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일치성이 孔子의 언행을 통하여 論語에 드러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만 論語에서는 상담자 孔子가 상담 기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한 편으로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편에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 있을 뿐이다. 따라서 論語에 녹아있는 상담기법을 구체화하고 그 의미를 현대의 상담학도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줄 현대적 의미의 이론적 틀이 필요한데 그것이 인간중심 상담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동아시아 사상의 강점은 그 심오함에 있고, 약점은 사상의 실천에 대한 방법론이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기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서는 현대인이 동아시아 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방법론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반면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사상의 실천적 방법론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서구에서는 그들만의 사상으로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동양사상으로서의 시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두 문화의 통합과 절충의 시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려준다. 현대사회의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현대인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를 선두에서 진행하는 학문 중 하나가 상담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학 연구에서는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만남이 현대인의 문제해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현대의 한국인들이 변화와 성장의 삶을 추구할 때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폭넓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에서는 한국인이 심리적 측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儒敎思想에 내포되어 있는 현대 상담이론의 원리들을 탐색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儒敎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孔子의 論語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論語에서 상담원리를 발견하고 그 상담원리를 구체화하여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담 이론의 틀로 제시하기 위하여 비교 이론으로 인간중심 상담원리를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儒敎와 인간중심 상담원리는 인간주의라는 공통된 정신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인간중심 상담원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한 후 다음으로 論語에 나타난 인간관, 상담목표, 상담전략과 기법을 검토하였다. 論語에 대한 검토에서는 먼저 論語에 나타난 인간관을 검토한 후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인간관으로 해석하여 설명하였다. 論語와 인간중심 상담원리는 모두 인간주의라는 이론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論語는 인간중심 상담원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인간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 본성은 개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情緒的 관계 맺음과 상호간의 선한 의지의 도움을 통해 향상되고 실현된다는 측면에서도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인간관과 같았다.

論語에 나타난 상담목표의 검토에서도 역시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상담목표로 그 내용들을 이해하였다. 이 절에서 論語에 나타난 바람직한 인간상인 ‘君子’와 인간중심 상담원리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은 용어와 인간완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특성들은 大同小異함을 발견하였다. 즉 인간이 타고난 본연의 아름다운 선함과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君子’가 되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모든 사람이 ‘君子’나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에서 방해받았기 때문이고 이때 성장에 방해받은 사람들은 좋은 인간 관계를 통해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知行合一의 모델링을 보이면서 내담자들이 ‘君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論語에서 추구하는 상담의 목표이며, 이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을 기르려는 인간중심 상담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論語에 나타난 상담전략과 기법을 알아보았는데 論語에는 인간중심 상담원리에서 강조하는 상담원리와 기법들이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Rogers가 인간중심 상담원리에서 제시하는 상담기법과 전략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일치성이 孔子의 언행을 통하여 論語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論語의 여러 篇의 사례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었다.

본고는 넓게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儒敎文化圈에 영향 받은 내담자들, 좁게는 儒敎的 습성에 익숙한 한국인을 상담할 때 상담자가 어떻게 현대적 의미로 儒敎를 이해하고, 儒敎的 습성에 익숙한 내담자를 현대적 상담장면에 적용하도록 도울 것인지를 論語에 나타난 인간중심 상담원리의 도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고가 한국적 상담의 토착화를 위한 한 연구물로서 또 論語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학적 분석으로 현대의 상담학도들에게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 제시한 이론적 고찰이 실제 상담현장을 통해 검증되고, 그 내용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후속 작업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7). 인지치료의 관점에서 본 불교. **심리학의 연구문제**, 4, 279-321.
권석만, (1998). 불교수행법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삼학을 중심으로. **심리학의 연구문제**, 5, 99-142.

- 권정안. (1989). **春秋의 根本理念과 批判精神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삼화. (2002). **論語에 涵의된 상담원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상호, 김기정 역. (1999). **인간주의 교육과 행동주의 교육**. 서울: 문음사.
- 박성희. (1999). 동양의 마음과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261-280.
- 박성희. (2001). **상담과 상담학-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 성백효 역주. (1996). **縣吐完譯: 論語集註**.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 이동식. (1968). 한국에서의 상담과 심리치료의 철학적 정초 서설. 심경 윤태림 박사 회갑기념 편집위원회(편), **심리교육논총: 윤태림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동식. (2000).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서울: 일지사.
- 이죽내. (1981). 선과 분석심리학적 정신치료에 있어서 기본 전제와 태도의 비교. 소암 이동식 선생 회갑기념사업회(편), **도와 인간과학: 소암 이동식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 삼일당.
- 윤사순. (1985).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서울: 을유문화사.
- 윤호균. (1982 a).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I. 인간 및 심리적 문제에 관한 견해. **임상심리학보**, 3(1), 35-48.
- 윤호균. (1982 b).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II. 심리적 문제의 해결. **임상심리학보**, 3(1), 49-64.
- 윤호균. (1999). 불교의 연기론과 상담. 최상진, 윤호균, 한덕응, 조궁호, 이수원,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 지식산업사.
- 윤호균. (2001). 공상, 집착 그리고 상담: 상담접근의 한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18.
- 이광세. (1998). **동양과 서양 두 지평선의 융합**. 서울: 길.
- 張基昫. (華岡校友會 역, 1981). **孔子學說의 現代의 意義**. 서울: 형설출판사.
- 정종. (1980). **孔子的 敎育思想**. 서울: 집문당.
- 정창용. (1968). 정신치료에서 요구되는 자아의 지각에 있어서의 동서간의 차이. **신경정신의학**, 3, 1-8.
- 한국사상연구소 편. (2001).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 서울: 예문서원.
- 황임란. (2001). **단기학생상담모형 개발- Osborn-Parnes의 창의적 문제해결(CPS)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황임란. (2002). 창의성의 인간중심 상담적 이해와 응용. **상담학연구**, 3(2), 481-498.
- 務台理作. (1961). **現代のヒューマニズム**. 東京: 岩波新書.
- Carkhuff, R. R., & Anthony(1979). *The Skills of helping*. Massachusett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 Corey, G. (2001).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Ivey, A. E., D'Andrea, M. D., Ivey, M. B., & Simek-Morgan, L. (2002).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multicultural perspective (5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Ivey, A. E., Pederson, P. B., & Ivey, M. B. (2001). *International group counseling: A microskills approach*. Belmont, CA: Brooks/Cole.
- Kolesnik, W. B. (1975). *Humanism and/or behaviorism in education*. Boston, MA: Allyn & Bacon.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2nd ed.)*. New York: Van Nostrand Company.
- Maslow, A. H. (1976). Creativity in self-actualizing people. In A. Rosenberg & C. R. Hausman (Eds.), *The creativity question* (pp. 86-92).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Rogers, C. R. (1954). Toward a theory of creativity. *ETC: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11(4), 249-260.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log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Schmidt, J. J. (1996). *Counseling in school: Essential services and comprehensive programs (3rd ed.)*. Boston: Allen & Bacon
- Sharf, R. S. (2000). *Theories of psychotherapy & counseling: Concepts and cases (2nd, ed.)*.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Thompson, C. L., & Rudolph, L. B. (2000). *Counseling children (5th ed.)*. CA: Wadsworth Brooks/Cole.
- Tu Wei-ming(1996).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Ed.)*. NY: Harvard University Press.

논문접수: 2004년 5월 14일 / 1차심사 2004년 6월 2일 / 2차심사 2004년 6월 8일

황임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심리(상담)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학계열 및 상담심리전공 석, 박사 과정과 대전대학교 영재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출강중이며 주요 저서 및 역서로는 '상담과 생활지도의 길잡이', '교육심리학 용어 사전', '에니어그램: 성공하는 사람의 성격관리', '교사를 위한 셀프 카운슬링', '에니어그램의 이해와 적용', '에니어그램 지능: 효과적인 수업과 학습을 위한 성격의 이해' 등이 있다.

e-mail: hwang-ir@hanmail.net

The Study on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Principles implicit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Hwang, Im-Ra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nalects of Confucius(論語) on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theory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its result. Then, discuss the probability to applicate it to Asian and Korean counseling. The Confucianism has recently been interested the Western and Korean societies, but it has not yet been well introduced within the counseling field. Most people in Korea are still in the Confucian habits of the heart. Now, it is time that we have to develop a counseling approach based on the spirit of the Eastern and Korean worlds altogether. So this study tries to compare some counseling principles from the Analects of Confucius with those of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theory.

The ideology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is based on humanism as is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theory. The Analects of Confucius agrees with goodness of humanity, and its goal in relation to human growth is to cultivate a man of virtue as well as fully functioning person actualizing themselves. It has some helping skill for the person and it is very strongly related to the person centered counseling. It maintains that people always try to find themselves in virtue and experience a state of self actualization. But people's efforts for self actualization do not succeed always. That is the reason why people need the help of others. Both ideologies also agree with the idea that counselors who help their clients should be aware of their own self.

This study analysed the counseling principle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from Western counseling view point based on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theory. It will enrich the counseling process and strategies in the Eastern and Korean culture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support understanding multicultural viewpoints in the counseling field and broaden the counselors' perspectives with regard to the counseling process as an effective approach to human change for the better.

Key words: Confucianism, Analects of Confucius, Confucius, a man of virtue, perfect virtue, Humanism, Person-centered counseling, fully functioning person